2025년 6월 30일

스마트폰 / 2차전지 소재 Analyst 이창민
cm.lee@kbfg.com

스마트폰

5월 스마트폰 판매: 618 쇼핑 축제 효과로 +5% YoY

5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2% MoM/+5% YoY, 역대 최장 618 쇼핑 축제 효과

— 시장 조사기관 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5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0.99억대를 기록해 전월 (0.97억대) 대비로는 +1.6%, 전년동월 (0.94억대) 대비로는 +4.9% 증가했다. 618 쇼핑 축제 효과를 누린 중국 시장의 판매 증가 폭이 컸다. ① 중국 (22.8백만대, +20.8% MoM, +5.9% YoY): 이구환신 보조금 (6,000위안=120만원 이하 제품에 대해 최대 500위안=10만원의 구매 보조금)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618 쇼핑 축제 (5월 13일부터 시작) 영향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다. 다만 언론보도 (6/19 연합뉴스)에 따르면 5월 말~6월 초부터 충칭시와 장쑤성, 광둥성 등 몇몇 지방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구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6월 판매량에 대해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미국 (8.6백만대, -13.4% MoM, +10.2% YoY): 아이폰16e 출시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판매량이 성장했으나, 관세 우려로 인한 가수요가 발생했던 3~4월 대비로는 부진했다. ③ 유럽 (12.9백만대, -4.5% MoM, -2.4% YoY): 높은 기저로 인한 역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폰16e 출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애플 (+7% YoY)을 제외한 대부분의 OEM들의 판매량이 감소했다. ④ 인도 (11.8백만대, +3.9% MoM, +6.8% YoY): 탈중국/친인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플 (+55% YoY)은 올해 들어 좋은 판매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강도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판매량 (-0.6% YoY)을 기록했다.

자체 프로모션과 618 쇼핑 축제 영향으로 중국 아이폰 판매량 급증

— ① 삼성전자는 판매량 20.3백만대 (-1.7% MoM, +7.8% YoY), 시장점유율 20.6% (-0.7%p MoM, +0.6%p YoY)를 기록했다. 갤럭시S25의 판매량 (2~5월 누적 판매량 16.6백만대, +0.1% YoY)은 전작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갤럭시A56을 중심으로 A시리즈 판매 호조세 (13.5백만대, +2.5% MoM, +9.8% YoY)가 지속된 점이 긍정적이었다. ② 애플은 판매량 17.3백만대 (+1.8% MoM, +17.5% YoY), 시장점유율 17.5% (+0.0%p MoM, +1.9%p YoY)를 기록했다. 이구환신 보조금 조건에 맞추기 위해 중국 내 아이폰16 프로 시리즈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공격적인 판매전략을 펼쳤으며, 618 쇼핑 축제 수요까지 겹쳐 5월 한 달간 중국 내 판매량이 성수기급 성적을 기록 (25년 5월 중국 판매량 419만대 vs. 24년 9월~12월 평균 362만대)했다. 다만 비수기에 인위적인 추가 수요를 창출한 만큼 오는 9월 출시될 것으로 추측되는 아이폰17 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삼성전기 Top Pick: AI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고성장 산업향 매출 지속 확대

— 삼성전기에 대한 IT 부품 업종 Top Pick 관점을 유지한다. 스마트폰과 PC 등 성장이 정체된 Legacy 제품 중심에서 AI와 전기차 등 고성장/고부가 산업향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AI 관련 투자 확대가 서버와 네트워크 등 고부가 산업향 부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고객들 중심으로 AI 관련 수요가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중국발 수요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MLCC와 실리콘 캐퍼시터, 패키징기판 등의 AI향 판매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② BYD 등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가 전장용 MLCC 수요 개선을 이끌고 있다. ADAS와 파워트레인 등 고부가 전장용 MLCC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소수의 업체들만이 공급할 수 있는데,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는 만큼 대당 탑재량 증가/제품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MLCC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더 많은 리포트 보기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